

백악관 “韓·日과 먼저 관세 협상…단기에 면제·예외 어렵다”

“미국 노동자·농민 위해 긍정적…많은 양보 있었다” 평가
“관세보다 더 좋은 적자 해소 아이디어 있다면 대화 가능”

연일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테이블에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을 먼저 앉히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교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단기에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도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행정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앞다퉈 미국과 협

상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누구와 언제 협상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한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concessions)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레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 정책 때문에 수년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긴 “큰 교역 파트너들”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나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

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급,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난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특히 조지(상호관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관세) 예외나 면제를 두지 않으려

고 한다는 점을 저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했다”며 “조지에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무역적자를 없애고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전체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은 단기에는 면제나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협상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 왜냐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나라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주말과 밤에 일하고 있다”면서도 “무역적자는 수십년간 쌓였고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TR이 현재 약 50개 국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대부분이 미국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크라 파병 6개월…北, 안보·경제 지원 챙긴다

파병 1만1000명 중 4000명 사상
드론 등 현대전 준비없이 총알받이
러, 군사·경제적 대가 지급 추측
북한군 포로 1명 한국 귀순 희망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파병한 지 반년이 지났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애꿎은 북한 청년들만 이역만리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안보·경제 지원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1차로 투입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드론이 동원되는 현대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선 투입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포로들도 동료들이 무인기에 대거 희생됐다고 전했다.

파병 북한군이 사실상 ‘총알받이’ 신세였다는 건 북한군 포로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이들은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 등 가족들도 당연히 이들의 파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드론 등 현대전에 대한 준비도 사실상 없었다.

북러는 파병을 계기로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고 있다. 외교뿐 아니라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고위급 교류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간 정상회담도 양국을 오가며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열렸다. 올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모습.

/연합뉴스

북러 양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군사·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히기도 했다.

특히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 정찰위성 관련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나같이 우리 안보엔 치명적인 사안들이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에도 동아줄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국 각지에 공장을 짓고 있고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평양종합병원이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김정은표 치적사업’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배경엔 러시아의 도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파병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지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명의 북한군 가운데 1명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의 한국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방위비 재협상 시사

한덕수 대행과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출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안착

NASA 임무 수행 후 12월 귀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사진)이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다.

리아노보스티, AP 통신 등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를 인용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스 MS-27 우주선이 8일 오후 6시께(한국시간) ISS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우주선에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3명이 탑승했다.

앞서 이들을 태운 소유스 MS-27 우주선은 소유스 2.1a 로켓에 실려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고 9분 후 저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으며 약 3시



간 후 ISS에 도착했다.

이번 비행은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다.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약 8개월(245일)간 머물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9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